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2 (2019): 107-137.

유사 최소공백화의 환경에 출현한 스페인어의 공백화*

정 원 석
경희대학교

정원석(2019),「유사 최소공백화의 환경에 출현한 스페인어의 공백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2), 107–137.

초 록 이 논문에서는 유사 최소공백화(pseudo–stripping)의 환경에 출현한 스페인어의 공백화(gapping)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 최소공백화(*not*–stripping)와 유사 최소 공백화는 등위접속구조(coordinate structure)에서 출현한다. 이 두 구문은 *sí*/*no* 등과 같은 극성표지(polarity marker)에 의해 생략이 인허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유사하지만 생략의 잔여물(remnant)과 극성표지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유사 최소공백화의 환경에 출현하는 공백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극성표지를 동반한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잔여물은 하나가 아닌 적어도 두 개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외견상 공백화와 유사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 해당 구문은 일종의 유사 최소공백화와 공백화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문에 대해 본고는 최근 생략문 분석에 널리 채택되는 소위 이동과 삭제(movement and deletion)라는 이론적 기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해당 구문에 나타난 극성표지는 모든 잔여물들을 후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고가 제안하는 PF–삭제 분석에는 반드시 잔여물의 이동(movement of the remnant)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섬제약(island constraint) 위반이 생략을 통해 개선(repair by ellipsis)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본고에서 제안한 분석에 포함된 잔여물의 의무적 이동이 유사 최소공백화의 환경에 출현한 스페인어의 공백화 분석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핵심어 공백화, 유사 최소공백화, 극성표지, PF–삭제, 잔여물의 (비)이동

* 이 논문의 내용과 전개과정에 대해 귀중한 논평과 제안을 해 준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혹여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I. 들어가며

Ross(1967) 이후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래 (1)과 같은 최소공백화(stripping) 현상은 (2)의 공백화(gapping)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등위접속구조(coordinate structure)에서 관찰된다. 이와 같이 두 구문의 출현 환경이 서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는 후자의 형성과정에 사용된 동일한 기제를 적용한 결과로 나타난 생략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구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생략 이후 남은 잔여물(remnant)의 개수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최소공백화는 오직 하나의 구성 성분만을 생략 이후 잔여물로 남기지만, 공백화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구성 성분이 잔여물로 필요하다 (Johnson 2018).[1) 2)]

(1)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y su hermano también.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y al trabajo también.

(2)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y su hermano ensalada.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y su hermano al trabajo.

또한, 이른바 부정 최소공백화(not-stripping)라는 구문도 존재한다. 아래 (3)-(4)에서 보듯이, 이 구문에서는 역접 접속사(adversative conjunction) *pero*로 도입되는 후행절에 생략 이후 남겨진 잔여물이 문장 부정어(sentential negation) *no*와 함께 출현하며, 의미적으로 이전 문맥에서 전달된 정보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3b)와 (4b)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의 경우 부정 최소공백화 구문에서 문장 부정어는 잔여물을 선행 또는 후

1) 이 논문에서 출처가 없는 예문으로 제시된 것은 모두 연구자가 창작하거나 선행연구의 예문들을 재구성한 것임. 또한, 해당 예문들의 문법성 또는 비문법성은 연구자가 문의한 스페인 출신 원어민 화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임.

2)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의 공백화는 수여동사(ditransitive verb)가 포함된 경우에는 세 개의 논항이 모두 잔여성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i) a. *John gave a book to Mary, and Bill a disk to Susan.
b. Juan le dio un libro a María, y Luis un disco a Susana.

행할 수도 있다.[3] Depiante(2000)는 (4b)와 같이 잔여물을 후행하는 문장 부정어가 출현한 구문을 유사 최소공백화(pseudo-stripping)라 부른다.

(3) a. John takes his sandwich to his clase, but not his brother.
b. *John takes his sandwich to his clase, but his brother not.

(4)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su hermano.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no.

흥미롭게도 스페인어에는 (4b)의 예문과 유사하게 문장 부정어가 포함된 (5)와 같은 생략문의 사례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흥미로운 점은 문장 부정어가 모든 잔여물을 후행하여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5)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al trabajo no/*pero su hermano no al trabajo.

(Borrego 2011:283, (49))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의 예문은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 몇 가지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과연 (5)와 같은 생략문이 실제로 유사 최소공백화의 사례로 간주되는 것이 합당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사) 최소공백화의 정의와 달리 (5)의 예문에서는 표면적으로 생략절에 남은 잔여물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2)에서 살펴 본 전형적인 공백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의 예문은 두 개의 잔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백화의 또 다른 변이형(variant)으로 간주해 볼 여지도 있다. 또한, (5)의 예문에서는 어떤 이유로 문장 부정어가 모든 잔여물을 후행해야 하는지가 흥미로운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전 단락에서 살펴봤듯이, 스페인어에서는 기본

3) 후에 언급하겠지만, (4b)은 영어의 동사구 생략에 해당하는 (i)와 같은 구문에 대응되며 (3b)의 영어 예문이 비문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동사구 생략과는 별개로 영어의 부정문 생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소위 "*do*-support"가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부재함으로서 (3b)의 비문법성을 설명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i) John takes his sandwich to his clase, but his brother doesn't.

적으로 부정 최소공백화와 유사 최소공백화가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잔여물이 문장 부정어를 선행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5)의 예문에서 관찰되는 어순의 제약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점에 대한 답변으로 본고는 (5)와 같은 예문이 과연 어떤 종류의 생략문인지 살펴보고, 또한 통사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스페인어의 부정 최소공백화와 유사 최소공백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봄으로서 두 구문이 서로 동일한 기제를 통해 도출되는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구문으로 간주하여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5)와 같은 생략문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V장에서는 전형적인 절 생략(clausal ellipsis)구문에서 관찰되는 섬제약과 생략을 통한 개선(repair by ellipsis)에 대해 논의함으로서 본고에서 제안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II. 스페인어 부정 최소공백화와 유사 최소공백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어 부정 최소공백화와 유사 최소공백화에서는 선행절과 등위 접속된 후행절에서 생략의 잔여물로 나타나는 요소는 문장의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 또는 부가어 등의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아래 (6)-(7)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6)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su hermano.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ensalada.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al trabajo.

(7) a. Juan lleva bocadiilo a clase, pero su hermano no.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ensalada no.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al trabajo no.

또한 아래 (9)-(10)에서 보듯이, 긍정극성 표지(affirmative polarity marker)인 *sí*가 잔여물과 함께 나타나 후행절의 생략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4)]

(9) a.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su hermano.
b.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ensalada.
c.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al trabajo.

(10) a. Juan no lleva bocadiilo a clase, pero su hermano sí.
b.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ensalada sí.
c.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al trabajo sí.

이와 같은 두 구문간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부정 최소공백화와 유사 최소공백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Morris(2008), Nakao(2008), Vicente(2006)와 같은 학자들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래 (11)과 같이 유사 최소공백화에서 발생하는 생략은 전적으로 수의적이지만 (12)의 부정 최소공백화에서는 반드시 생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5)] 왜냐하면 전

4)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에 대응되는 영어의 최소공백화 구문은 전부 비문으로 간주된다.

(i) a. *John takes his sandwich to his clase, but yes his brother.
b. *John takes his sandwich to his clase, but yes his salad.
c. *John takes his sandwich to his clase, but yes to his work.

혹자는 (i)에서 *yes* 뒤에 음성적 휴지가 나타나면,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의 스페인어 예문에서는 긍정극성 표지 *sí* 뒤에는 어떠한 음성적 휴지도 필요가 없다는 점을 통해 영어와는 다른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5)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반드시 모든 최소공백화의 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긍정극성 표지 *sí*가 사용될 경우 해당 예문들에서 생략은 수의적이다.

(i) a.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su hermano (lo lleva a clase).
b.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ensalada (la lleva a clase).
c.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al trabajo (lo lleva).

연구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은 (i)과 같은 예문들은 후행절의 생략과 상관없이 모두 정문으로 수용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후에 II.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11a-b)와 (12a-b)의 예문에서 생략된 부분에는 각각 이동한 주어의 흔적(trace)과 주어 위치에 공범주 *pro*를 포함하고 있기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단락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낸다.

자의 경우 생략은 후행절에 포함된 문장의 문법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 생략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결정적으로 주어진 문장의 문법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11)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no (lo lleva a clase).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ensalada no (la lleva a clase).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al trabajo no (lo lleva).

(12)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su hermano (*lo lleva a clase).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ensalada (*la lleva a clase).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al trabajo (*lo lleva).

이와 더불어, 구문의 출현 환경에 있어서도 부정 최소공백화와 유사 최소공백화는 서로 다른 통사적 분포를 보인다. 즉, 전자와 달리 후자는 아래 (13)-(14)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등위접속구조가 아닌 *aunque* 또는 *mientras que*로 도입되는 양보절(concessive clause)에 뿐만 아니라 복문의 내포절(embedded clause) 내부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6)]

(13) a. Yo pienso hablar con él, aunque Juan, no.
b. Juan estudiaba mucho, mientras que tú no.
c. María tiene razón, aunque Antonio cree que no.
(Brucart 1999:2985-2826)

(14) a. Aunque Juan no, Pedro estudiaba lingüística.
b. Jesús dice que no, pero creo que al final volverá a Barcelona.
c. Luis dice que no, pero yo sé que habla inglés con bastante fluidez.
(Brucart 1999:2822-2823)

6) (13a)와 (14a)의 예문들에 대응하는 부정 최소공백화는 기본적으로 모두 비문이다.

(i) a. *Yo pienso hablar con él, aunque no Juan.
b. *Aunque no Juan, Pedro estudiaba lingüística.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Jung(2015)은 (14)와 같은 예문들은 모두 생략절이 선행사 앞에 나타난 소위 역방향 생략(backward ellipsis)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 최소공백화는 생략의 방향성(directionality of ellipsis)에 관해서도 부정 최소공백화와는 다르다고 한다. 아래 제시된 두 예문들 간의 대조를 통해 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7)]

(15) a. Juan no, pero su hermano lleva bocadillo a clase.
b. *No Juan, pero su hermano lleva bocadillo a clase.

또한 Gallego(2011)에서 지적되었듯이,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는 생략의 잔여물과 선행사와의 인접성과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에서 보듯이, (16b)의 부정 최소공백화의 경우 잔여물 *no María*는 선행사 *Juan*과 인접할 수 있지만, (16a)의 유사 최소공백화에서는 이와 같은 배치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16) a. *Juan, pero María no leyó a Salinger.
b. Juan, pero no María leyó a Salinger.
(Gallego 2011:49, (29))

마지막으로 Partida Peñalva(2017)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관찰을 통해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는 서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유사 최소공백화에서는 잔여물이 선행사와 동지표가 되면(co-indexed) 결속될 수 없지만, 부정 최소공백화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잔여

7) Merchant(2006)에 따르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 최소공백화는 아래 (i)에 제시된 동사구 생략(VP-Ellipsis)과 (ii)의 수문(sluicing)과는 달리 오직 순방향 생략만을 허용한다고 한다.

(i) a. John solved the problem, but Mary didn't.
b. Mary didn't, but John solved the problem.

(ii) a. John solved the problem, but I don't know how.
b. I don't know how, but John solved the problem.

물이 선행사에 결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 (17a-b)의 예문들이 보이는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사 최소공백화의 잔여물로 나타난 재귀 대명사는 선행사와 동지표가 되면 비문을 야기한다. 이는 곧 이 구문에서는 잔여물이 선행사에 의해 성분통어 되는(c-commanded)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a. Carla$_i$ encontró fotos de Juan, pero de ella$_i$ no.
b. *Carla$_i$ encontró fotos de Juan, pero de ella misma$_i$ no.
(Partida Peñalva 2017:4, (8))

반면에 아래 (18)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 최소공백화는 잔여물로 선행사와 동지표된 재귀 대명사를 허용하지만, 재귀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비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부정 최소공백화의 경우 잔여물로 나타난 재귀 대명사를 결속하는 요소는 생략부(ellipsis site)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18a)와 (18b)에서는 전부 (생략부 내부의 다른 요소가 아닌) 선행절의 주어가 후행절의 재귀 대명사를 성분통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a. Carla$_i$ encontró fotos de Juan, pero no de ella misma$_i$.
b. *Carla$_i$ encontró fotos de Juan, pero no de ella$_i$.
(Partida Peñalva 2017:4, (9))

이와 같은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는 해당 구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III. 선행연구 검토

앞서 II.1장에서 살펴본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의 여러 차이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Bosque(1984), Brucart(1987, 1999), Partida Peñalva(2017)

와 같은 학자들은 오직 유사 최소공백화의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생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정 최소공백화는 단순히 (생략이 포함되지 않은) 등위접속구조(coordinate structure)를 내포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와는 반대로, López (1999), Depiante(2000, 2004), Jung(2015) 등은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는 모두 절 생략의 결과로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1. 단순 등위접속구조로 본 부정 최소공백화

Bosque(1984), Brucart(1987, 1999)와 마찬가지로 Partida Peñalva(2017)에서는 유사 최소공백화와 달리 부정 최소공백화는 생략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Partida Peñalva(2017)에 따르면, 아래 (19a)의 예문은 (19b)와 같은 등위접속을 통한 도출구조를 가진다고 한다.

(19) a. María encontró fotos, pero no pinturas.
b. [$_{TP}$ María encontró [$_{VP}$ [$_{ConjP}$ [$_{DP}$ [$_{NP}$ fotos]] [$_{Conj'}$ pero [$_{DP}$ no [$_{NP}$ pinturas]]]]]]

(Partida Peñalva 2017:11, (23a), (24))

(19b)의 구조에서 Partida Peñalva(2017)는 생략의 잔여물 *pinturas* 앞에 위치한 *no*는 문장 부정어가 아니라 잔여물 DP에 직접 부가된 구문 부정어(constituent negation)로 제안하고 있다. Partida Peñalva(2017)에 따르면, 아래 (20)의 예문에서와 같이 구문 부정어와 잔여물로 주어가 나타난 경우도 (19a)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20) María encontró fotos, pero no Juan.

(Partida Peñalva 2017:11, (23b))

하지만 Partida Peñalva(2017)는 단순 등위접속의 구조를 통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20)과 같은 예문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20)의 예문을 단순 등위접속으로 분석하는 것

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역접 접속사 *pero*를 통해 등위 접속된 DP_1 [*María*]는 DP_2 [*no Juan*]과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혹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상정하여 등위접속구조를 통한 분석으로도 충분히 (20)의 예문을 도출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 $[_{TP}$ [María]$_i$ encontró fotos$_j$ $[_{vP}$ $[_{ConjP}$ t_i $[_{Conj'}$ pero [[no Juan]]] $[_{VP}$ t_j]]]

이와 같은 구조에서 TP의 지정어 위치로 주어 이동은 분명히 Ross(1967)의 등위접속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을 위반하고 있지만, 논항이동(A-movement)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Johnson 1996/2004:40-41).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20)의 어순을 고려하면 별 다른 이동의 동인 없이 목적어 명사구 *foto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기저 위치에서 적어도 최초 주어 생성 위치인 vP의 지정어 상위로 이동해야만 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어 명사구의 이동은 당면한 문제를 위한 임시방편적(ad-hoc)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절 생략으로 본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

López(1999:276-278)는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의 문장 부정어 *no*가 IP(=TP)의 내부에서 생성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cf. Emonds 1977; Pollock 1989; Olarrea 1997; D'Introno 2001) 유사 최소공백화에 관해 아래 (22)와 같은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 제시된 구조에서 ΣP의 핵에 위치한 극성요소 *sí*/*no*는 동사구 생략(VP-ellipsis)을 허용하며, 잔여물은 생략이 적용되기 이전에 ΣP에 부가된다.[8)]

8) López(1999)에서 논의된 예문은 다음과 같으며 Depiante(2000)가 제시한 예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i) a. Susana leyó Guerra y Paz pero María no [e].
b. Susana no leyó Guerra y Paz pero María sí [e].

(López 1999:278, (2))

López(1999)는 자신의 분석을 구체적인 수형도를 통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22) a. Ana leyó el Quijote pero [IP [ΣP María [ΣP no [VP e]]]
b. Ana no leyó el Quijote pero [IP [ΣP María [ΣP sí [VP e]]]
(Depiante 2000:125, (50))

이와 유사하게, Jung(2015)에서도 (22)와 같은 유사 최소공백화의 예문들을 영어의 동사구 생략에 대응되는 구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Jung(2015)은 양보절과 내포절에 생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역방향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cf. (13-15)) (22)의 예문들을 동사구 생략의 일종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 가능성을 (22)의 예문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는 기본적으로 영어식 동사구 생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cf. Zagona 1988; Lobeck 1995; Gallego 2011; Brucart & Macdonald 2012).[9)]

(23) a. *Ana ha hecho los deberes, pero yo no he.
b. Ana has done her homework, but I have not.
(Gallego 2011:51)

이와는 달리, Depiante(2000, 2004)는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

에는 논의의 편의상 Depiante(2000:125)에서 인용된 분석의 형태로 표현하기로 한다. 한편, 문장 부정어가 생략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관찰된 사실이다 (cf. Martins 1994; Lobeck 1995; Potsdam 1997; López 1999; Johnson 2001; Saab 2009).

9) 잘 알려져 있듯이, 스페인어는 아래 (i)와 같은 영어식 동사구 생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i) a. John ate apples, and Mary did too.
b. John ate apples, but Mary didn't.
c. John will eat apples, and Mary will too.
d. John will eat apples, but Mary won't.

이와 같은 영어식 동사구 생략이 스페인어에 부재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생략문의 구성에 영어의 *do*-support와 같은 조동사를 이용하여 좌초된 T를 구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cf. López 1999). 하지만 이러한 견해가 가진 문제점은 스페인어와 같이 로망스어에 속한 포르투갈어에는 비록 *do*-support에 해당하는 기제는 사용되지 않지만 소위 동사가 좌초된 동사구 생략(Verb-Stranded VP-Ellipsis)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Cyrino & Mato(2002, 2005), Rouveret(2012) 등을 참조.

는 기본적으로 잔여물의 이동과 VP보다 상위에 투사된 기능구의 PF-삭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Depiante(2000, 2004)는 이 두 구문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잔여물로서 이동하는 성분과 삭제되는 기능구가 무엇인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Depiante(2000, 2004)가 제안한 분석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는 각각 아래 (24)와 (25)에 포함된 IP-삭제와 ΣP-삭제로 도출된다.

(24) a. Ana leyó el Quijote pero [$_{FP}$ María$_i$ [$_{\Sigma P}$ no ~~[$_{IP}$ t$_i$ leyó el Quijote]~~]]
b. Ana no leyó el Quijote pero [$_{FP}$ María$_i$ [$_{\Sigma P}$ sí ~~[$_{IP}$ t$_i$ leyó el Quijote]~~]]
(Depiante 2000:127, (57))

(25) Ana leyó el Quijote pero [$_{FP}$ [no Pedro]$_i$ ~~[$_{\Sigma P}$ [$_{IP}$ t$_i$ leyó el Quijote]~~]]
(Depiante 2000:133, (7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epiante(2000:127)는 유사 최소공백화의 경우 IP-삭제로 인해 ΣP의 핵인 Σ는 좌초되게 되므로 이를 형태적·음성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위 좌초된 접사 여과(Stranded Affix Filter)(Lasnik 1981)라 불리는 장치를 통해 극성요소인 *no* 또는 *sí*가 Σ에 삽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cf. Bošković 2000). 즉, (24)에서 Σ에 나타난 *no*와 *sí*는 원래부터 통사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좌초된 접사로 인해 생략 이후 PF에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24)에 제시된 절 생략을 통한 분석은 (22)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ΣP가 어떤 통사적 위치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López(1999)의 분석과는 달리 Depiante(2000, 2004)는 Laka(1990)의 스페인어 부정어 *no*의 위치에 관한 제안을 수용하여 ΣP는 TP(=IP)의 상위에 투사된다고 가정하고 유사 최소공백화를 분석한 것이다. 한편, 연구자의 견해로는 (25)에 제시된 분석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의 성분을 이루고 있지 않은 부정어 *no*와 잔여물이 마치 하나의 단위로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Depiante(2000:132)는 (25)의 후행절에 나타난 잔

여물 [*no Pedro*]에서 *no*를 구문 부정어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종의 비성분 이동(non-constituent movement)은 생성문법에서 널리 가정하고 있는 성분 이동(constituent movement)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비성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25)의 분석에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위에 제시된 (24)와 (25)에서 왜 동일한 부정극성 표지인 *no*가 다르게 분석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즉, 전자의 경우 극성요소는 좌초된 Σ를 구제하기 위해 PF에서 삽입을 통해 도입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별 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 마치 직접 Σ에 생성되어 잔여물과 같이 이동하는 것처럼 분석하고 있다.[10)]

한편, Vicente(2006)의 경우도 절 생략을 통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Depiante(2000, 2004)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잔여물이 이동하는 위치가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에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아래 (26)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27a)의 유사 최소공백화의 경우 잔여물이 ΣP의 상위에 투사된 TopP의 지정어로 이동하며 (27b)의 부정 최소공백화의 경우 ΣP의 하위에 투사된 Foc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고 나타내 볼 수 있다.

(26) [$_{TopP}$ Topic [$_{\Sigma P}$ no [$_{FocP}$ Focus ~~[… …]~~]]]

(Vicente 2006:205, (20))

(27) a. Ana leyó el Quijote pero [$_{TopP}$ María$_i$ [$_{\Sigma P}$ no ~~[… t$_i$ leyó el Quijote]~~]].
b. Ana leyó el Quijote pero [$_{\Sigma P}$ no [$_{FocP}$ María$_i$ ~~[… t$_i$ leyó el Quijote]~~]]

이전 단락에서 살펴본 Depiante(2000, 2004)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Vicente (2006)도 유사 최소공백화와 부정 최소공백화에 관해 절 생략을 통한 통합분

10)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Depiante(2000, 2004)는 좌초된 접사로 인해 Σ에 극성요소 *no*/*si*를 삽입한다고 제안하였지만 실제로 *no*/*si*는 의미적 내용(semantic content)이 있는 요소이므로 영어의 *do*-support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미가 있는 내용을 삽입하여 좌초된 접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Depiante(2000, 2004)의 분석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지적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Vicente(2006)의 통합분석에서도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오직 유사 최소공백화에서만 생략이 수의적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통해 스페인어의 부정 최소공백화의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생략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문장은 비문이 되며 이에 따라 생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어 볼 수 있다(cf. (11-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 전개하려고 한다.

3. (부정) 최소공백화에서 생략은 과연 항상 필수적인가?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 최소공백화와 달리 부정 최소공백화에서는 반드시 생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cf. Morris 2008; Nakao 2008; Vicente 2006). 아래의 예문들은 (11)과 (12)에서 다시 가져온 것이다.

(28)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no (lo lleva a clase).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ensalada no (la lleva a clase).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al trabajo no (lo lleva).

(29)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su hermano (*lo lleva a clase).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ensalada (*la lleva a clase).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no al trabajo (*lo lleva).

하지만 연구자의 견해로는 위와 같은 생략의 의무성/수의성은 오직 부정극성 표지인 *no*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극성 표지 *sí* 또는 극성부사(polarity adverb) *también*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1)]

(30) a.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su hermano (lo lleva a clase).
b.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ensalada (la lleva a clase).
c.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í al trabajo (lo lleva).

11) (30-31)의 예문들은 연구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 의해 모두 정문으로 간주된다.

(31)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y también su hermano (lo lleva a clase).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y también ensalada (la lleva a clase).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y también al trabajo (lo lleva).

이와 같은 관찰 결과를 고려하면, (29)의 부정 최소공백화에서 생략이 필수적인 것은 부정극성 표지 *no*와 연관 지어 생각해야 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아래 (32a)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의 부정극성 표지 *no*는 외현 주어(overt subject)를 선행하여 나타날 수가 없지만, (32b)처럼 긍정극성 표지 *sí*는 외현 주어를 선행 또는 후행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32c)의 극성부사 *también*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실이다.[12)]

(32) a. (*no) Juan (no) lleva bocadillo a clase.
b. (sí) Juan (sí) lleva bocadillo a clase.
c. (?también) Juan (también) lleva bocadillo a clase.

따라서 (29)의 예문들에 포함된 의무적인 생략은 (32a)에서와 같이 외현 주어를 선행하는 부정극성 표지 *no*로 인해 야기되는 비문법성을 생략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cf. Ross 1969; Lasnik 1999, 2001; Fox & Lasnik 2003). 하지만 이 경우 생략을 통한 개선은 잔여물 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극성 표지 *no*와 외현 주어간의 상대적 어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타 절 생략문에서 자질점검(feature checking)의 실패, 격 부여(Case assignment)의 실패, 또는 섬제약(island constraint)의 위반 등이 생략을 통해 개선되는 것과는 다르다. 즉, Vicente(2006)의 분석처

12) 익명의 심사자는 문두에 위치한 극성부사 *también*의 분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비록 (32c)에 제시된 자체로는 약간 어색할지라도, 연구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 따르면 극성부사 *también*은 아래 (i)와 같이 등위접속사를 통해 도입되는 경우 문두에 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i) … y también yo quiero comprar un jersey.

본문에서 논의 중인 최소공백화의 예들은 전부 등위접속구조에 출현한 것으로 추가적인 논의 없이 본고는 (32c)의 분포를 가정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럼 (cf. (27b)) 부정 최소공백화에서 잔여물이 ΣP의 하위에 투사된 Fo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면 필연적으로 (33a)와 같은 통사적 결과물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는 스페인어에서 생성 불가능한 어순으로 뒤이은 PF-삭제를 통해 개선될 경우에만 최종 결과물이 정문으로 도출될 수 있다 (33b).

(33) a. *[$_{\Sigma P}$ no [$_{FocP}$ su hermano$_i$ [$_{TP}$ t$_i$ lo lleva a clase]]]
b. [$_{\Sigma P}$ no [$_{FocP}$ su hermano$_i$ ~~[$_{TP}$ t$_i$ lo lleva a clase]~~]]

반면에, 긍정극성 표지 *sí*와 극성부사 *también*의 경우에 생략이 전적으로 수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 (34)-(35)에 나타냈듯이, FocP의 지정어 위치로 잔여물을 이동한 후 얻게 되는 도출의 결과물은 스페인어에서 가능한 어순으로서 전혀 비문법성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PF에서의 생략은 필수적일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13)]

(34) a. [$_{\Sigma P}$ sí [$_{FocP}$ su hermano$_i$ [$_{TP}$ t$_i$ lo lleva a clase]]]
b. [$_{\Sigma P}$ sí [$_{FocP}$ su hermano$_i$ ([$_{TP}$ t$_i$ lo lleva a clase])]]

(35) a. [$_{\Sigma P}$ también [$_{FocP}$ su hermano$_i$ [$_{TP}$ t$_i$ lo lleva a clase]]]
b. [$_{\Sigma P}$ también [$_{FocP}$ su hermano$_i$ ([$_{TP}$ t$_i$ lo lleva a clase])]]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스페인어의 최소공백화에서는 부정극성 요소 *no*가 출현한 경우에만 생략이 필수적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의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연구자의 견해가 일리가 있다면, Depiante(2000)가 제안한 분석에 포함된 극성표지의 PF-삽입은 그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cf. (25)). 왜냐하면 Depiante(2000)의 분석처럼 만약 PF-삭제가 극성요소의 삽입에 선행하여 부정극성 표지 *no*가 IP-삭제 이후 삽입되어 Σ에 나타난다면 더 이상 생략의 수의성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

13) 논의의 편의상 (35)에서 본고는 극성부사 *también*은 ΣP의 핵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면을 고려하여, 본고는 Depiante(2000)와 달리 부정 최소공백화에 나타난 극성표지 *sí/no*는 ΣP의 핵으로 직접 통사에 도입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5)와 같은 극성표지를 동반한 생략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5)의 생략문은 공백화인가 유사 최소공백화인가 아니면 둘의 결합인가?

우선 (5)(=(36))에 제시된 예문에 대한 분석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과연 이 구문이 어떤 종류의 생략문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36)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al trabajo no/*pero su hermano no al trabajo.

(Borrego 2011:283, (49))

언뜻 보기에 (36)의 예문은 후행절의 포함된 부정극성 표지 *no*와 잔여물 간의 상대적 위치로 인해 부정 최소공백화라기보다는 유사 최소공백화에 가깝다고 간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f. (4)). 하지만 구문에 출현한 잔여물의 개수로 보면 (cf. Johnson 2018), (36)의 예문은 오히려 정의상 공백화에 가깝다. 물론 제 3의 견해로 (36)에서 관찰되는 생략현상은 일종의 유사 최소공백화와 공백화의 조합으로 간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잔여물의 개수로는 공백화에 해당하지만, 잔여물과 극성표지의 상대적 어순을 고려하면 (36)의 예문은 유사 최소공백화에 해당되는 생략문으로 분석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14]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6)의 생략문과 전형적인 유사 최소공백화는 서로 출현 환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2.1에서 살펴봤듯이, 유사 최소공백화는 양보절과 내

14) 연구자가 아는 바로는, (36)의 예문에서와 같이 잔여물에 이어 나타난 극성표지 *no* (또는 *sí*)를 포함하고 있는 공백화의 사례는 선행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포절 내부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cf. (13-14)). 이와 유사하게, 아래에서 보듯이 (36)와 같은 생략문도 동일한 환경에 출현할 수 있다.[15)]

(37)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aunque/mientras que su hermano al trabajo no.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creo que su hermano al trabajo no.
c.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yo sé que su hermano al trabajo no.

또한 (36)의 예문에서 생략은 유사 최소공백화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수의적이며, 이는 아래 (3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f. (11)).

(38)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al trabajo no (lo lleva).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여 본고는 (36)의 예문을 유사 최소공백화의 환경에 출현한 공백화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생략문 분석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이동과 삭제(movement and deletion)의 이론적 기제를 가정하여 본고는 (36)의 생략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안한다.[16)]

(39) … [XP su hermano$_i$ [YP al trabajoj [ΣP no ~~[TP t$_i$ lleva bocadillo t$_j$]~~]]]

이 구조에서 후행절의 잔여물 *su hermano*와 *al trabajo*는 통사에서 TP 외부로

15) 연구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은 (37)의 예문들을 모두 완벽한 정문으로 판단한다.
16) Centeno(2011), Jung(2017), Potter *et al* (2017) 등에 따르면, 공백화는 기본적으로 등위접속구조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한다. 완전한 문장이 등위 접속된 경우 공백화는 절 생략으로 분석되며, 구 단위가 등위 접속된 경우 공백화는 전역이동(Across-The-Board)로 분석된다. 본고에서 논의 중인 공백화는 오직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후행절에 나타난 문장 부정어의 존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소한 후행절은 부정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행절 역시 문장으로 두 개의 문장이 등위 접속된 공백화의 기저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각 이동하며 이후 ΣP의 핵에 위치한 부정극성 표지 *no*가 자신의 보충어 위치에 있는 TP의 생략을 허가하고 있다.[17] 이와 같은 도출 방식은 영어의 공백화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cf. Gengel 2007, 2013; Repp 2009; Potter *et al* 2017, etc.) 첫 번째 잔여물은 TopP의 지정어로 그리고 두 번째 잔여물은 Foc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수용한다면, (39)의 XP는 TopP로, 그리고 YP는 FocP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

이와는 대조적으로, Abe(2015, 2016)에 의해 제안된 소위 비성분 삭제(non-constituent deletion)를 공백화에 수용한 Jung(2017)의 분석은 (36)의 예문을 (40)과 같이 분석할 것이다.

(40) … [$_{XP}$ su hermano$_i$ [$_{\Sigma P}$ no ~~[$_{...}$ t$_i$ lleva bocadillo al trabajo]~~]]

이와 같은 분석에서 PF-삭제는 최초 생성위치에 있는 두 번째 잔여물 *al trabajo*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첫 번째 잔여물인 *su hermano*만이 ΣP의 상위에 투사된 X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의 동인은 스페인어 부정문에서의 전치주어 위치와 관련해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Laka(1990)의 견해를 수용하여 스페인어에서 ΣP가 TP의 상위에 투사된다면, 부정문에서 전치주어 어순을 얻기 위해선 아래 (41)에서 나타냈듯이 반드시 TP 내부의 주어가 ΣP 외부의 어떤 위치로 이동하여야만 한다.

(41) [$_{XP}$ su hermano$_i$ [$_{\Sigma P}$ no [$_{TP}$ t$_i$ lleva bocadillo al trabajo]]]

17) 문장 부정어가 생략을 인허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관찰되고 이론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cf. Martins 1994; Lobeck 1995; Potsdam 1997; López 1999; Johnson 2001; Saab 2009).

18) 본문에서 언급한 생략의 기제는 오직 문장단위의 등위접속이 포함된 공백화에만 해당된다. 각주12 참조.

19) 본문의 전개상 화제와 초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필요치 않으므로 XP와 YP를 통해 잔여물의 이동한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본문에 전개되는 논의는 기존에 제안된 공백화 분석이 과연 어떻게 (36)와 같은 생략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구조에서 연구자는 주어 명사구 *su hermano*가 TP 내부에서부터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혹자는 (42)와 같이 후치주어 위치에서 직접 X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2) [$_{XP}$ su hermano$_i$ [$_{\Sigma P}$ no [$_{TP}$ lleva t$_i$ bocadillo al trabajo]]]

하지만 이와 같은 기저 구조를 (36)의 생략문에 가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어순을 고려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다. 즉, 공백화에 포함된 등위접속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은 생략 전후에 동일한 어순을 가진 것으로 분석한다.[20]

따라서 생략 이전 (36)의 후행절은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전치주어를 가진 어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40)과 같은 비성분 삭제를 통한 분석은 왜 (36)의 생략절에서 두 번째 잔여물이 극성표지 *no/sí*를 후행하여 나타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렵다. 또한, 잔여물의 비이동을 포함한 분석은 (43b)의 예문이 정문으로 그리고 (43a)의 예문이 비문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43) a.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al trabajo no.
b.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no al trabajo.

그렇다면 (39)에 제안한 분석은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대조를 설명할 수 있을까? 본고는 (43b)의 비문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가 수용한 이동과 삭제의 기제를 고려하면, 공백화에서는 반드시 모든 잔여물들

20) 생략문 연구에서는 이를 구성 성분들의 평행성 조건(condition on parallelism of constituents)이라 부른다. 이 조건에 따라, 아래 (ia)와 같은 공백화의 예는 (적어도 스페인어에서는) 비문으로 간주되며 (ib)와 같이 구성 성분들의 평행성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정문으로 간주된다.

(i) a. *Juan compró un libro, y una revista María.
b. Juan compró un libro, y María una revista.

이 TP의 외부로 이동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PF-삭제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43b)의 경우 두 번째 잔여물인 *al trabajo*가 삭제되는 TP의 내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 PF-삭제를 통해서는 (43b)와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없다.

(44) … [$_{XP}$ su hermano$_i$ [$_{\Sigma P}$ no ~~[$_{TP}$ t$_i$ lleva bocadillo~~ (*al trabajo)~~]~~]]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 (45)와 같은 전형적인 공백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동과 삭제를 통한 분석 하에서는 (46a)와 같이 모든 잔여물들이 PF-삭제 이전에 모두 TP 외부로 이동한 경우에만 생략의 결과물이 정문으로 되며, (46b)에서처럼 두 번째 잔여물이 TP의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PF-삭제는 단지 비문을 야기할 뿐이다.

(45) Juan compró un libro, y María una revista.

(46) a. … y [$_{XP}$ María$_i$ [$_{YP}$ una revista$_j$ [$_{TP}$ t$_i$ compró t$_j$]]]
b. … y *[$_{XP}$ María$_i$ ~~[$_{TP}$ t$_i$ compró una revista~~]]

혹자는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론내적(theory-internal)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잔여물이 의무적 이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43)에서 관찰되는 대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앞서 살펴봤듯이, 스페인어 부정 최소공백화에는 잔여물이 부정극성 표지 *no*를 후행하여 나타나며 유사 최소공백화에서는 극성표지를 선행하여 나타나야 한다 (cf. (4)). 따라서 (43b)의 비문법성을 단순히 두 구문간의 결합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하며 적절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부정 최소공백화나 유사 최소공백화의 잔여물이 초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들어 (43b)가 비문인 이유를 하나의 문장에 두 개의 초점이 나타난 구조 때문이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43a)의 문법성이 초점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본고는 (43)에

나타난 대조는 잔여물 이동이 발생했느냐에 따른 결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해 PF-삭제 이전에 모든 잔여물은 통사적 이동을 통해 TP의 외부로 이동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이동과 삭제를 통한 (36)의 예문에 대한 분석과 잔여물 이동을 통한 (43)의 대조에 관한 본고의 설명은 절 생략문에서 관찰되는 생략을 통한 개선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고가 제안한 분석을 뒷받침해보려 한다.

V. 섬제약과 생략을 통한 개선

아래 (47)과 같은 수문(sluicing)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래 (48)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의문사구 이동과 TP-삭제의 조합으로 분석하고 있다 (cf. Lasnik 2001; Merchant 2001).[21)]

(47) He is writing something, but you can’t imagine what.

(Ross 1969:252)

(48) … but you can’t imagine [$_{CP}$ whati C$_{[E]}$ ~~[$_{TP}$ he is writing t$_i$]~~]

이에 반해 Abe(2015, 2016)는 (47)의 생략문에 대해 아래 (49)와 같은 비성분 삭제 분석을 제안한다. Abe(2015, 2016)는 이동에 관한 복사이론(the copy theory of movement)에 입각하여 PF-자질을 가진 의문사구 *what*의 하위 복사체(lower copy)가 문자화(spell-out)된 것으로 수문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하위 복사체 <*what*>은 삭제된 TP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PF-자질로 인해 생략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9) … but you can’t imagine [$_{CP}$ <what>$_{[Focus]}$ C$_{Q}$ ~~[$_{TP[Delete]}$ he is reading~~ <what>$_{[PF][Focus]}$~~]~~]

(Abe 2015:33, (34))

21) (48)의 구조에는 Merchant(2001)에 의해 제안된 생략자질(E(llipsis)-feature)을 도입하여 C가 TP-생략의 인허자(licensor)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be(2015, 2016)에 따르면, 하위 복사체의 문자화는 아래 (50)의 조건에 따라 PF-자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 복사체(higher copy)는 PF에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22]

(50) The head of a chain produced by Move cannot be pronounced unless it has an effect on PF output
(Abe & Hornstein 2012:183, (40))

이와 같은 분석은 수문이 섬 효과(island effect)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설명을 제공한다.[23] Ross(1969) 이후 널리 알려져 있듯이, 수문은 동사구 생략과는 달리 섬제약을 위반한 경우 생략을 통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듯이, (51a)의 예문에서 *which one of my friends*는 관계절(relative clause) *[a man who bit …]* 내부로부터 이동하였으므로 섬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장의 비문법성이 야기된다. 하지만 (51b)와 같이 관계절을 포함한 TP를 삭제할 경우 문법성은 상당히 개선된다.[24]

(51) a. *She kissed a man who bit one of my friends, but Tom doesn't realize which one of my friends she kissed a man who bit.
b. ?She kissed a man who bit one of my friends, but Tom doesn't realize which one of my friends.
(Ross 1969:276)

22) 이동에 관한 복사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상위 복사체가 PF에서 실현된다. 하지만 (50)과 같이 상위 복사체가 PF-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오히려 PF-효과를 가진 하위 복사체가 PF에서 실현된다 (cf. Nunes 1995, 2004). 이와 같은 하위 복사체 문자화는 특히 바타어에서 관찰되는 동사 분열문(verb clefting), 한국어, 일본어 등에서 관찰되는 소위 역방향 통제(backward control)구문 등에 적용되어 지배결속이론에서 제안한 공범주 PRO-이론을 대체하고 있다.

23) 하지만 Abe(2015, 2016)가 제시한 분석에 포함된 비성분 삭제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PF에서 의문사구의 하위 복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TP가 삭제되는 것은 Abe(2015, 2016)가 제안한 분석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섬 효과의 부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비성분 삭제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는 아니다. 수문에 관한 Abe(2015, 2016)의 분석이 가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Abels(2018)를 참조.

24) 본문에서는 영어의 예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생략을 통한 문법성 개선은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사구 생략은 아래 (52)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문사구 섬 제약(wh-island constraint) 위반을 개선하지 못한다.

(52) They want to hire someone who speaks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remember which (*they do).

(Merchant 2001:4-5)

한편, 수문에서 섬 효과가 부재한 점에 대해 Abe(2015, 2016)가 최근 제안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Lasnik(2001), Merchant(2001), Fox & Lasnik(2003) 등과 같은 학자들과 견해를 같이하여 일부 섬 효과는 PF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문에서 섬 효과가 부재한 것은 의문사구가 실제로는 제자리(in-situ)에서 문자화(spell-out)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PF에서는 어떠한 섬제약도 위반하지 않은 것임으로 섬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락에서는 III.3장에서 본고가 제안한 (53)(=(39))의 분석이 과연 섬 효과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53) … [$_{XP}$ su hermano$_i$ [$_{YP}$ al trabajo$_j$ [$_{\Sigma P}$ no ~~[$_{\mu P}$ t$_i$ lleva bocadillo t$_j$]~~]]]

먼저 (53)과 같은 잔여물의 이동을 상정한 분석이 섬제약 위반에 민감한지를 살펴보자. 만약 잔여물이 섬제약을 위반하여 이동한 경우 PF에서 생략을 통해 문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51a)에 대응되는 아래 스페인어 예문을 보자.[25)]

25) (54)는 (51)의 인용문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예문이며 연구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에 의해 문법성 판단이 내려진 예문이다. 한편, (51)의 후행절에는 의문사구 이동에 따른 주어-동사 도치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어와 목적어의 역순은 (36)의 예문과는 다르지만 본문의 논의 전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54) *Susana besó a un hombre que pegó a uno de mis amigos, pero no sé a cuál de mis amigos no besó María a un hombre que pegó.

연구자가 문의한 스페인 출신 원어민 화자들은 모두 (54)의 예문을 비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곧 후행절의 *a cuál de mis amigos*가 관계절 섬(relative clause island)을 위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원어민 화자들은 (51b)에 대응되는 예문으로 (55)와 같이 후행절에 생략을 적용하면 ((54)의 예문에 비해) 문법성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한다.[26]

(55) Susana besó a un hombre que pegó a uno de mis amigos, pero no sé a cuál de mis amigos María no.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략을 통한 문법성 개선은 본고에서 논의 중인 생략문에 관해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 연구자의 견해로는 앞서 살펴본 수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6)(=(56))의 생략문은 잔여물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cf. (53)).

(56) Juan lleva bocadillo a clase, pero su hermano al trabajo no/*pero su hermano no al trabajo.

만약 이와 같은 추론이 일리가 있다면, 앞서 살펴본 수문에 대한 Abe(2015, 2016)의 제자리 분석(in-situ analysis)으로는 (55)와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생략절의 또 다른 잔여물인 *María* 역시 부정사 *no*가 위치한 ΣP 상위로 이동하는 것과 더불어 두 잔여물들 간의 상대적 어순 때문이다. 즉, 하위 복사체 <*a cuál de mis amigos*>가 문자화되는 것으로는 (55)가 아니라 (57)과 같은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며 이는 스페인어에서 비문이다.[27]

26) (54)와 (55)의 후행절에 나타난 주어와 부정어의 어순에 관해 좀 더 설명하자면, 후자의 경우는 연구자가 제안한 (53)의 분석에 따라 잔여물이 ΣP 상위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54)와 달리 (55)의 생략문에서는 주어가 부정사를 선행하고 있다.

27) 연구자가 문의한 원어민 화자들의 문법성 판단에 따르면 (57)의 예문은 완전한 비문으로 간주된다. 한편, (57)의 구조는 Abe(2015, 2016)의 비성분 삭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57)의 비문법성은 비성분 삭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57) *Susana besó a un hombre que pegó a uno de mis amigos, pero no sé [$_{CP}$ ~~<a cuál de mis amigos>~~$_{[Focus]}$ C$_{Q}$ [$_{\Sigma P}$ no ~~[$_{vP[Delic]}$ besó~~ María ~~a un hombre que pegó~~ <a cuál de mis amigos>$_{[PF][Focus]}$]]].

오히려 복사이론에서는 전형적인 상위 복사체 문자화를 통해서만 (55)와 같이 정문으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수문에서의 섬 효과 부재에 대한 Abe(2015, 2016)의 제안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다른 생략구문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동과 삭제를 이용한 기존의 분석은 왜 (55)와 같은 결과물만이 정문으로 도출되는지를 상위 복사체의 문자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VI. 마치며

본고에서는 유사 최소공백화의 환경에 출현한 공백화 구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스페인어의 최소공백화와 유사 최소공백화 구문들은 서로 유사한 면도 있으나 차이점도 있으며 모든 종류의 최소공백화 구문에 생략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사) 최소공백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각각의 구문이 가진 특징들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유사 최소공백화의 환경에 출현한 공백화가 통사적으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잔여물의 비이동보다는 잔여물의 이동을 수반한 PF-삭제를 통해 해당 구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고는 절 생략구문에서 잔여물의 이동이 섬제약에 민감하지만 생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잔여물의 의무적 이동과 PF-삭제를 통한 분석을 유사 최소공백화의 출현 환경에 나타난 공백화 구문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참고문헌

Abe, J.(2015), *The In-Situ Approach to Sluicing*, Linguistik Aktuell-Linguistics Today 222, John Benjamins.

_____(2016), "Make Short Answers Shorter: Support for the In-Situ Approach", *Syntax*, Vol. 19, No. 3, pp. 223-255.

Abe, J. & N. Hornstein(2012), "'Lasnik-effects' and string-vacuous ATB movement", Myriam Uribe-Etxebarria and Vidal Valmala(eds.), *Ways of Structure Build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9-205.

Abels, K.(2018), "On 'sluicing' with apparent massive pied-pip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in press), pp. 1-67.

Borrego, J.(2011), "Coordinación y subordinación de enunciados no oracionales", Escandell Vidal, M. V., M. Leonetti & C. Sánchez López (eds.), *60 problemas de gramática*, Akal libros.

Bosque, I.(1984), "Negación y elipsis", *Estudios de Lingüística (Universidad de Alicante)*, 2, pp. 171-199.

Brucart, J. M.(1987), *La elisión sintáctica en español*, Barcelona, Publicaciones de l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_____(1999), "La elipsis", Ignacio Bosque, and Violeta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pp. 395-522.

Brucart, J. & J. Macdonald(2012), "Empty categories and ellipsis", Hualde, José Ignacio, Antxon Olarrea & Erin O'Rourke(eds.), *The Handbook of Spanish Linguistics*, London: Blackwell, pp. 579-601.

Centeno, N.(2011), *Gapping and determiner sharing in Span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Cyrino, S & G. Mato(2002), "VP ellipsis in European and Brazilian Portuguese: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Portuguese Linguistics*, Vol. 1, pp. 177-214.

_____(2005), "Local Licensers and Recovering in VP Ellipsis", *Journal of Portuguese Linguistics*, Vol. 4, No. 2, pp. 79-112.

Depiante, M.(2000), *The syntax of deep and surface anaphora: A study of null complement anaphora and stripping/ bare argument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_____(2004), "Dos casos de elipsis con partícula de polaridad en español:

evidencia a favor de una visión no uniforme de la elipsis", *Revista de la Sociedad Argentina de Lingüística*, Vol. 1, pp. 53-69.

D'Introno, F.(2001), Sintaxis generativa del español: Evolución y análisis, Madrid: Cátedra.

Emonds, J.(1977),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Root, Structure-Preserving and Local Transform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Fox, D. & H. Lasnik(2003), "Successive-cyclic movement and island repair: The difference between sluicing and VP-ellipsis", *Linguistic Inquiry*, Vol. 34, pp. 143-154.

Gallego, A.(2011), *Sobre la elipsis*, Madrid: Arco/Libros.

Gengel, K.(2007), *Focus and ellipsis: a generative analysis of pseudogapping and other elliptical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uttgart.

______(2013), *Pseudogapping and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ohnson, K.(1996/2004), "In search of the English middle field",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______(2001), "What VP ellipsis can do, and what it can't, but not why", Mark Baltin & Chris Collins(eds.),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Oxford: Blackwell, pp. 439-79.

______(2018), *To Gap and Strip*,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Jung, W-S.(2015), "*Not*-stripping and Pseudostripping in Spanish", *Proceedings of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2015*.

______(2017), *The Non-unity of Gapp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Laka, I.(1990), *Negation in Syntax: On the Na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Projections*,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asnik, H.(1999), "Pseudogapping puzzles", E. Elabbas and S. Lappin(eds.), *Fragments: Studies in ellipsis and gapp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1-74.

______(2001), "When can you save a structure by destroying it?", M. Kim and U. Strauss(eds.),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ern Linguistic Society*, GLSA, pp. 301-320.

Lobeck, A.(1995), *Ellipsis: Functional heads, licensing, and ident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ópez, L.(1999), "VP-Ellipsis in Spanish and English and the Features of Aux", *Probus*, Vol. 11, No. 2, pp. 263-297

Martins, A. M.(1994), "Enclisis, VP-deletion and the nature of Sigma", *Probus*, Vol. 6, pp. 173-205.

Merchant, J.(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6), "Why no(t)?", *Style*, Vol. 20, No. 1-2, pp. 20-23(Special issue edited by William Salmon and Charalabos Kalpakidis as a Festschrift for Haj Ross).

Morris, A.(2008), "*Polarity Ellipsis and Negative Stripping*", Ms. Available at http://babel.ucsc.edu/~hank/ PolarityEllipsisandNegStripping.pdf

Nakao, C.(2008), "On Focus and Negation",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pp. 1-9.

Nunes, J.(1995), *The copy theory of movement and linearization of chain in the Minimalist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_____(2004), *Linearization of chains and sideward movement*, Cambridge Mass: MIT Press.

Olarrea, A.(1997), *Pre- and Postverbal Subject Position in Spanish: A Minimalist Accou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artida Peñalva, V.(2017), "Stripping in Spanish: Focalized PP Remnants", *Proceedings of the 2017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Linguistic Association*.

Pollock, J-Y.(1989), "Verb movement, UG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Vol. 20, pp. 365-424.

Potsdam, E.(1997), "Analyzing Word Order in the English Imperative", Wim van der Wurff(ed.), *Imperative Clauses in Generative Grammar: Studies Offered to Frits Beukema*,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 251-272.

Potter, D., M. Frazier & M. Yoshida(2017), "A two-source hypothesis for Gapp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35, No. 4, pp. 1123-1160.

Repp, S. (2009), *Negation in gapping*, Oxford Studies in Theoretical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oss, J. R.(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______(1969), “Guess who?”, Robert I. Binnick, Alice Davison, Georgia M. Green, and Jerry L.(eds.), *Morgan Chicago Linguistics Society*, Chicago, Illinois, pp. 252-286.

Rouveret, A.(2012), “VP ellipsis, phases and the syntax of morpholog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30, pp. 897-963.

Saab, A.(2009), *Hacia una teoría de la identidad parcial en la elip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uenos Aires.

Vicente, L.(2006), “Short negative replies in Spanish”, *Linguistics in the Neatherlands*, Vol. 23, pp. 199-211.

Zagona, K.(1988), “Proper government of antecedentless VP in English and Span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6, pp. 95-128.

정 원 석

경희대학교
alex–7554@hotmail.com

논문투고일: 2019년 06월 25일
심사완료일: 2019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08월 29일

Spanish Gapping in the Context of Pseudo-gapping

Wonsuk Jung
KyungHee University

Jung, Wonsuk(2019), "Spanish Gapping in the Context of Pseudo-gapping",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2), 107-137.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panish gapping which appears in the context of pseudo-stripping. In general, both *not*-stripping and pseudo-stripping occur in coordinate structures. Both types of ellipsis constructions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terms of ellipsis licensing by polarity markers such as *sí* and *no*, but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ith regards to the position of the polarity marker relative to the remnant. The occurrence of gapping in the context of pseudo-stripping is interesting because it is considered to be an instance of pseudo-stripping due to the relative word order between the remnant and the polarity marker, but it involves two remnants instead of one, and thereby on the surface it can be regarded as a combination of gapping and pseudo-stripping. For this type of ellipsis constructions in Spanish, I propose a clausal ellipsis analysis in terms of movement and deletion, and I argue that movement of the remnant must be involved in the derivation since the polarity marker always appears following all remnants. Finally, I address some issues relating to island repair by ellipsis in order to justify that movement of the remnant is needed for the analysis of gapping in the context of pseudo-stripping.

Key words Gapping, (Pseudo-)stripping, Polarity Marker, PF-deletion, (Non-) movement of the remnant